

불교 전통 '다비' 의식, 전승 끊길 위기

조계종 첫 실태 조사보고서 펴내... "전통문화 가치 관심 저조"

불교 전통의 장례의식인 다비(荼毘)의 전승 가치가 높음에도 이에 대한 전승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최근 '불교무형 문화유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다비 현황을 기록하고 이를 실행하는 전승자들을 현지조사해 정리한 조사보고서를 냈다.

다비는 사찰과 문중에 따른 고유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이지만, 단발적이며 비경제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장례의식 특성 상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적어서 그동안 기록화나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합천 해인사·순천 선암사·부산 범어사·장성 백양사·예산 수덕사·남양주 봉선사의 6개 사찰에서 참여관찰 및 실행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각 사찰마다 전승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연화단 제작과정 등 각 사찰별 다비 양상이 다양하기에 현재 실행자로부터 전승이 끊길 시 해당 사찰의 다비 전통이 끊길 위기가 발견됐다.

2013년 5월~12월 6개 사찰 조사 실행 스님 "전승자 없어 인부 작업" 사찰별 양식 달라 맥 끊길 위험

현재 대부분의 실행자들은 각 본사와 말사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이었으며 봉선사는 예외로 재가자가 실행하고 있었다. 저본인 의식집은 <석문의법>을 기본을 했지만 의식집은 다비 진행 순서에 국한됐으며 연화단 제작 방식은 각 사찰마다 다른 모습으로 구전돼왔다.

설문조사에서 해인사 다비를 실행하고 있는 종성 스님은 "따로 전승받은 바 없어 처음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초창기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의 다비를 보고 연구했다"며 "지금은 전승받은 스님이 없어 거의 인부들이 같이 작업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90년대부터 스님들이 다비를 배우지 않는다. 80년대까지는 염까지 스님들이 사중에서 다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범어사 다비를 실행하고 있는 석공 스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하려고



순천 송광사에서 진행된 법정 스님 다비식 당시 모습.

하지 않는다. 요즘은 인부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지만 배번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통방식 지키며 보급화하자는 제안 실어 실행 스님들은 승가의 다비가 전통방식으로 진행돼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비용 등을 낮추기 위한 보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어사 석공 스님은 일반신도들도 불교식 장례를 지낼 수 있게 신도를 위한 다비장이 개설돼야 한다고 했다. 백양사는 전통 방식에 입각한 정형화된 다비장을 상설로 제작해 재료를 줄여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행 스님들은 모두 전통방식을 추구하되 장엄을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밖에 조사 보고서는 각 사찰의 다비 양식과 재료, 석문의법 등 관련 서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조사보고서를 발간한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발간사를 통해 "사찰 환경이 점차 현대화 도시화 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활발히 전승되는 전통문화로서 다비의 가치는 크다"며 "이를 첫걸음으로 앞으로 다비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 보수현장평가 미비

문화재청 2월 12일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 개선' 공청회... 체계 개편

현행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를 비롯해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제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2월 1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문화재 수리체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현장의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는 자격제도 개선, 문화재 보수·정비 입찰제, 수리품셈(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교수는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문화재 수리는 공정이 매우 짙게 쪼개져 있어 작업에 따라 정밀한 품셈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품셈 제도는 아예 누락된 공정도 많고 직종별 인건비가 시중 노임단가와 30~5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노임을 조사해서 품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통기법에 의한 공정과 재료 등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며 "품셈은 문화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원칙으로 전통의 기법, 재료, 장인, 공정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기술에 기반한 인건비 산정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전통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비롯해 이에 대한 인건비 산정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직 명지대 교수는 '수리품셈제도 개선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에서 "전통의 재료와 기술이 전하지 않는 지금의 문화재 수리 현장에서 품셈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품셈은 특정 작업을 하는 데 드는 인력과 시간을 수량화한 것으

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문화재보수체계의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학에 문화재 수리기술의 필수 이수 과목과 학점 기준 마련, 시험과목의 비중 상향, 면접 강화 등을 제안했다.

수행능력 평가 미비, '윤찰' 제도 고쳐야 전문가들은 현재 '윤찰'로 불리는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수행능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통기술을 현재 '윤찰'로 불리는 문화재 수리 입찰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수행능력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화재 관리 종사자 공지가 중요해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재 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의 공지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이어졌다. 최기영 대목장은 "현재 문화재 종사자들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선이 팽배하다. 우리 문화재는 10만 종사자들의 굶주림과 피마른 고혈로 지켜낸 것"이라며 "우리 문화의 맥을 잇는다는 이들의 자긍심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우리 문화재를 지켜온 데에는 이날 모인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관리하는 소임을 맡은 입장에서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 당국이 관련예산 확충과 함께 문화재 전반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데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리 종사자 공지가 중요해

전국 사찰 경판 일제조사 실시된다

110개 사찰의 조선시대 2만 7000여 점 대상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와 함께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0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목판 2만 7000여 점에 관한 일제조사를 시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목판의 인문학적인 조사, 판종별 목록화, 수종 분석, 실측, 소장처 보존관리 현황조사, 그리고 디지털·적외선 촬영 등이다. 사찰 소장 목판은 법화경, 화엄경, 금강경 등 불교 주요 경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대부의 문집과 족보 등을 판각했던 경판도 일부 포함된다. 현재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은 대부분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각 판본에는 고려대장경 이후 사찰로 전수되어 온 조선시대 인쇄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한편,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전국 2천 900여 사찰에 비장(秘藏)되어 온 불상, 불화, 전적, 공예 등의 불교문화재 16만 1000여 점이 조사 완료됐다.

문화재청은 "이 자료에 근거해 중요 문



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방안과 도난 방지 방안을 모색해, 나주 심향사 건칠아미타 여래좌상을 보물 제1544호로 지정하는 등 80여 건의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사찰 소장 목판의 보존관리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결과물이 조선시대 인쇄문화의 전통과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이차돈 순교비 등 보물지정 예고

문화재청은 '경주 이차돈 순교비(慶州 異次頓 殉教碑)'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경주 이차돈 순교비는 신라 법흥왕 14년(527)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을 추모하고자 건립한 비석으로 조성연대는 현덕왕 9~10년(817~818)으로 추정된다.

불교 공인을 기록한 현존 최고의 사료이며 통일신라의 복식사와 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비석은 받침돌과 6면의 몸돌로 구성돼 있는데 제1면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에 전하는 이차돈의 순교 모습을 선명하게 조각했다.

제2면에서 제6면은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도록 평행 음각선을 그어 7형, 25칸의 정간(井間)을 치고 그 안에 한 글자씩 음각했다.



를 추진한다.

지정 추진 대상문화재는 '뚝섬 출토 금동여래좌상', '황룡사구층탑지', '상화령 미륵삼존상', '고려나한도' 등이 속해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고판화학회, '고판화연구' 창간호 발간

한국고판화학회(회장 한선화)는 최근 <고판화연구> 창간호를 펴냈다.

이번 창간호에는 △주심혜 북경 수도도서관 연구관원의 '한국 고판화박물관에 대한 인상' △마문대 북경 수도도서관 연구관원의 '중국 고대 목각판화자료의 연구와 정리' △석혜영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강사의 '고려조조대장경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 판화의 일고찰' △남권

희 경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의 '고판화 박물관 소장 16세기 목판본 불서류의 서지 및 삽화 연구' △이리구치 아츠시 국문학연구자료관의 '삽화 간행본의 양식에 대한 비교 검토' △박도화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의 '성화 13년간 불정심다라 니경변상도의 도상과 의의'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 자세 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 과정	교육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의료품호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한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법당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